

“선거 투명성·신뢰성 확보” 투개표 준비 ‘만전’

광주 DJ센터 투표지분류기 최종모의시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 설치
선거사무원 업무 숙달 교육 진행
투표지 투입 등 기기 가동·점검
재확인 대상은 사무원 육안 확인

“투표지를 꼼꼼히 확인해서 분류해 주세요. 개표는 선거의 마무리이자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2시께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 1층 전시장 B·C홀은 개표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곳에선 3일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된 이후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개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이 이뤄졌다.

모의시험의 중점은 각 절차에 투입되는 선거 사무원의 업무 숙지를 위한 교육과 개표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보조 장비인 투표지분류기 활용 방법 숙달이었다.

이번 선거는 시·도지사, 시·군·구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마련된 북구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조영권 기자

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감 등을 뽑는 만큼 투표지가 여러 장이다. 이를 별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개표의 첫 순서는 개함부에서 투표지를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후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장비가 투표지분류기다.

시험 운용에 앞서 안내 자료를 살핀 사무원들은 선관위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투표지분류기

와 연동된 PC의 화면에서 선거구와 투표지 수 등을 입력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모의 투표지 200여장을 분류기에 투입하자, 모터가 돌아가는 소

리가 들렸고 도장이 찍어진 후보자 별로 투표지가 분류됐다.

200여장의 투표지가 분류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30여초 정도였으며, 일부는 재확인 대상으로 구분됐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기표 위치가 투표란을 벗어났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된 경우, 기표 위치나 형태가 불명확한 경우 등 특정 후보자의 유효표로 바로 분류하기 어려운 표다.

이것들은 심사·집계부로 넘어가 개표사무원의 육안 확인을 거쳐 유·무효표가 최종 결정된다. 후보자 별 투표지도 이곳에서 한 차례 더 확인을 거친다.

여기까지 마친 뒤 집계 내용은 개표 상황표에 표시되며 이를 선관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시 공표된다.

이날 현장을 찾은 장용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분류기 등 개표에 활용되는 기기가 문제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투표대상이 많은 만큼 더욱 신경 쓰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6·3 지방선거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자신의 주소지에 맞는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8시-오후 6시이며 주소지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형우·이연상 기자

‘괴물 폭우’ 신안동 주민들 “언제까지 계획만” 분통

신안철교재가설 추진 경과 보고회

정준호 의원 개최...철도공단·시, 발표
“근본 대책 제자리걸음” 반발 잇따라

지난해 ‘괴물 폭우’로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신안동 주민들이 신안철교 재가설 경과 보고회에서 1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인 대책에 불만을 터뜨리며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2일 오후 2시 북구 신안동 신안교회에서 국가철도공단, 광주시, 북구 등 관계자와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철교 재가설 추진 경과 보고회 및 하천 정비 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신안동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이후 추진되고 있

는 재가설 사업과 하천 정비 계획의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 국가철도공단은 신안철교 재가설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공단 관계자는 “광주역 기능 유지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주선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임시선을 설치한 뒤 신안철교를 재가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다만 임시선 설치에 따른 편입 부지와 보상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설계가 마무리되면 별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가설을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우수관 정비와 자동개폐시설 설치 등 단기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주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했다. 장마철을 앞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에서다.

40여년째 신안동에 거주 중이라는 한 주민은 “계획만 100번 수립하면 뭐하나”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실제 공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지난해 이웃 주민이 물에 떠 내려가는 걸 본 뒤 후유증이 크게 남았다”며 “아직도 비만 오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단기 대책과 중장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찬용 기자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 ‘강간 등 살인’ 혐의 구속기소

檢, 흉기 꺼내기 전 목 조른 정황 확인

이채원양을 살해한 장윤기(33)가 강간·살인·살인미수·예비, 스톱강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강간 등 살인·상해, 가매매 등 이용 촬영), 살인미수·예비, 스톱강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채원양에 대한 범죄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강간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범행 현장이 찍힌 CCTV 화질을 복원한 결과 흉기를 꺼내기 전 채원양의 목을 졸라차 랑으로 끌고 가려던 화면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수법은 또 다른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했을 때 유사하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살인 혐의는 법정형의 최저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강간 등 살인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장씨는 채원양을 강간하려는 목적은 없었고 경찰 때와 마찬가지로 자살하

려다가 살해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검찰은 장씨가 사용하던 공기계를 재판분석해서 그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

요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성명불상의 중학생을 총 7회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로 인해 장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6개로 늘어났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향후 전담 수사팀이 공판도 맡아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장윤기의 범죄는 물론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행을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벌하도록 하겠다”며 “이런 범죄자들이 재판 중 심신미약, 거짓 반성문 따위의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단전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원양의 유가족은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서 재판부를 향해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안재영 기자

60플 라익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